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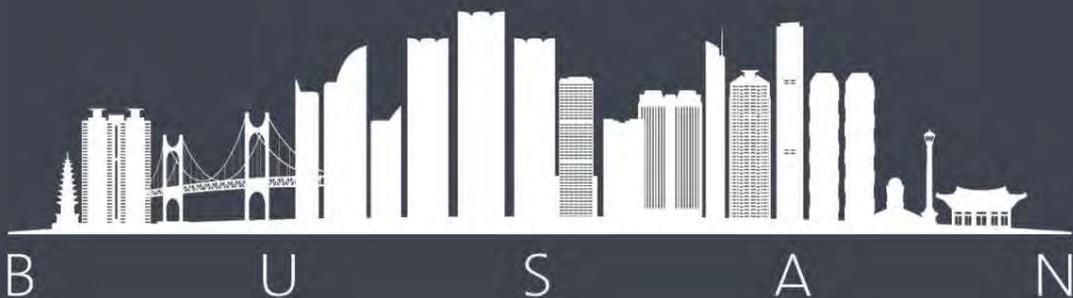
2023. 4. 24. (월) 14시~16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곤

주관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좌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발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
토론 장원창 인하대학교 교수
김 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손성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CONTENTS



| 개회 및 축사 |

개회사 -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4
인사말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6
축 사 -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당대표)	7
축 사 - 윤재옥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8
축 사 -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9
축 사 -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0
축 사 -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1
축 사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2

| 주제발표 |

발제1 .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
발제2.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	25

| 토 론 |

좌 장 -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41
토 론 - 장원창 인하대학교 교수	42
토 론 - 김 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43
토 론 - 조성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50
토 론 - 손성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51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 주 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 일 시** 2023. 4. 24(월) 14:00~16: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곤
- 주 관**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 주요내용** 금융중심지 평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위한 비전과 방향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 회	사회자
14:05~14:10	5' 인사말씀	국회의원 김희곤
14:10~14:30	20' 축 사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외
14:30~15:00	30' 발 제	발표자 1: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2: 동의대학교 배근호 교수
15:00~15:50	50' 토 론	좌 장: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 패널 1: 인하대학교 장원창 교수 패널 2: 산업연구원 김용 부연구위원 패널 3: 한국해양대학교 조성순 교수 패널 4: 부산광역시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
15:50~16:00	10'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동래구 김희곤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김기현 당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은 주택, 교통난, 환경 등 부작용에 시름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과 기업들이 다 떠나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양극화 문제이자 불평등이고,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여야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왔으며, 2005년 공공기관 1차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서울·수도권에 있던 346개 공공기관 중 절반인 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양·금융에 강점이 있는 부산에는 한국거래소(KRX),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자”는 ‘지방시대’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격차,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부산은 ‘금융중심지 육성’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허브’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길이 험난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보다 더 과감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 △디지털 융복합허브조성, △해양금융 클러스터 조성을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금융산업, 블록체인, 해양 연계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이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를 걸림돌로 지적하는 만큼,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15년.

이제 명실상부한 ‘부산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과거의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논의에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부산의 미래 먹거리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곤



인사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희곤 국회의원님, 좌장과 발제, 패널로 모시게 된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환적화물 세계2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7위의 해상운송의 글로벌 거점이며, 제조, 물류, 금융, 관광, 영화·영상 등 명실상부한 ‘남부권 경제 중심도시’입니다. 최근 디지털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핵심기술과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산업과의 융합·확산을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날이 갈수록 인구, 자본,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매우 큰 국가적 손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부산 천혜의 항만·물류 인프라와 금융 자원의 융합으로 남부권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든다면,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국내외 금융사 유치,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과 연계한 정책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며,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희곤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축 사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기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오늘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곤 의원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총장님과 발제자로 나서주신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앞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국토 비중의 11.8%에 불과함에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자본은 물론이고, 지방의 청년들까지도 수도권에 몰려들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이념과 상관없이 온 국민이 똘똘 뭉쳐 해결해 나가야 할 핵심 국정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건립되면서 블록체인, 핀테크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능을 고루 갖추는 등 부산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성장축으로서 부산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유의미한 담론이 형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김기현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우뚝 설 부산의 힘찬 도약을 만들어 내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 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 기 현



축 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윤재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곤 의원님,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편중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대한민국 제2도시로 명성을 쌓았으나, 지금은 ‘바다와 노인의 도시’ 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과 불평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려는 계획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이전하여 다양한 금융기능들을 집적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완성되면 부산의 발달된 해운·조선·물류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방소멸과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 윤 재 옥

축 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대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희곤 의원님, 부산광역시 및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과 고견을 나누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주도 성장 전략 아래 그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왔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이후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지역 내 총생산도 수도권 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수도권 과밀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지방은 더욱 소외되어 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금융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남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성장을 이끌어갈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전략 방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박대출



축 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일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희곤 의원님과 힘써주신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포화 현상이 극심하여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집중하는 성장 전략의 한계,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로 인한 국토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에서 다핵분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정책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자본·기업 초집중 현상은 수도권의 혼잡비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지방소멸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과 수도권의 양대 축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방안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발굴되어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두 관

축 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주제발표 및 토론자 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난 20여년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규모와 인구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방은 쇠퇴에서 소멸로 이르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경제발전을 견인하였던 동남권 지역도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부재, 인구의 역외유출로 동남권의 GRDP기준 경제규모는 전국 대비 14%로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화된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대구와 경북, 호남지역 그리고 동남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경제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이 그 대안일 것입니다.

디지털전환과 에너지전환 등 산업의 대전환기에 남부권 거점을 새로이 구축하고, 부산금융중심지가 기존의 해양·과생중심, 부산권에 국한된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융이 해양과 물류라는 부산의 특성과 만나고 주요 국책금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등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부산은 어떤 도시보다 매력 있는 금융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재 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님,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여러 금융공공기관과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들어섰고, 배출권거래소와 중앙청산소 유치,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통해 파생 및 해양금융 특화지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구 교육연구원(FATF TRAIN)의 유치 및 IDB-IIB총회, AfDB 연차총회 등 우수한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금융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오늘 토론회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가상자산 등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처럼 달라진 금융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글로벌 금융도시들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디지털 산업과 벤처캐피털이 발달한 도시가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15년부터 ESG 투자를 법제화하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석탄 금융을 제한하며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처럼 변화된 글로벌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금융산업의 메카라는 부산의 강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중심지 전략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금융중심지 육성은 결코 금융 분야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닌 만큼 교육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환경의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 국제화 대응단’을 금융위 내에 설치하여 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금융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관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발 제 1 -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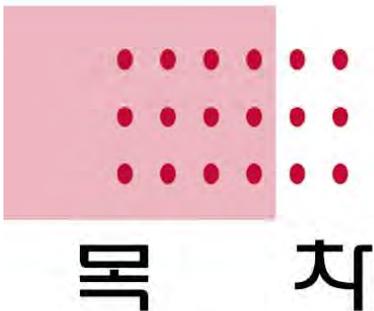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23. 04.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01 금융중심지 정책의 연혁

02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03 UK Infrastructure Bank 사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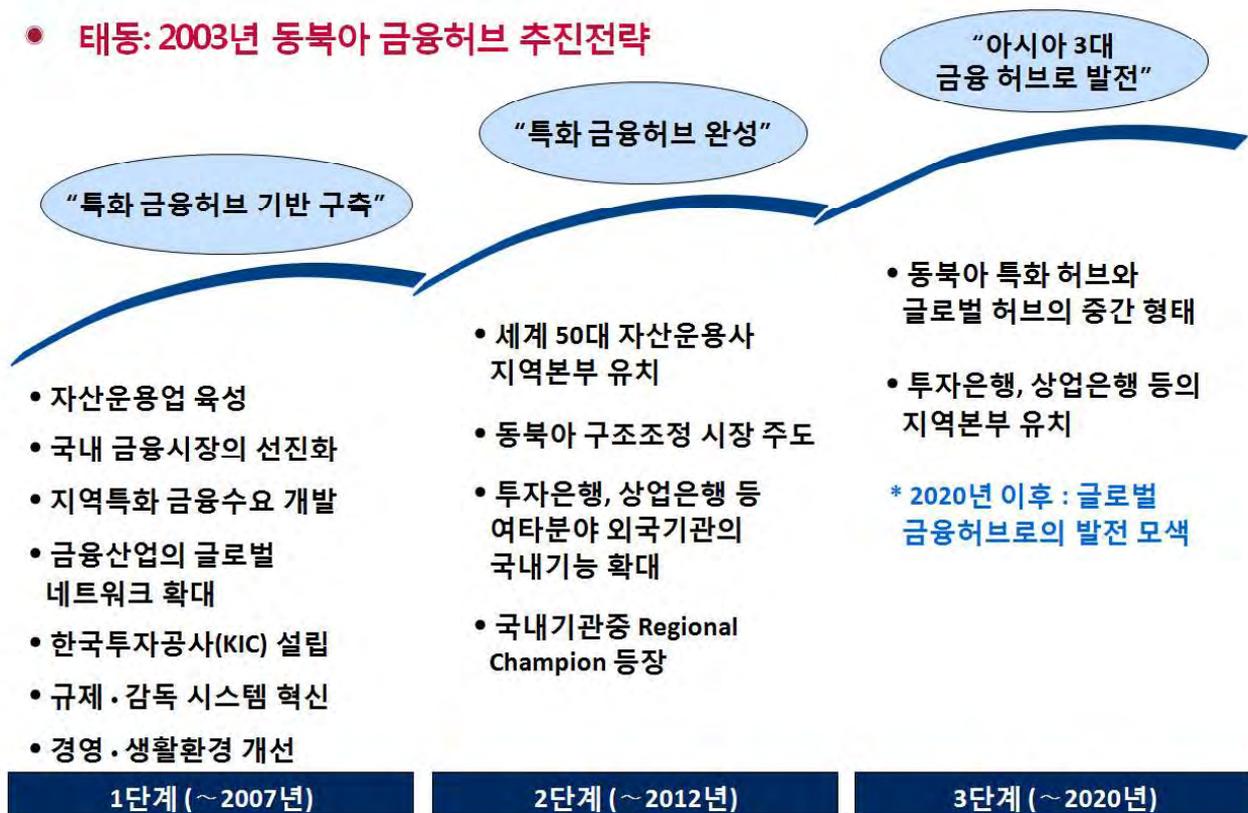
금융중심지 정책의 연혁

● 태동: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위기 방지 효과
- 우리실정에 맞는 '동북아' 중심, 글로벌 허브와의 격차 축소
- 막대한 연기금, 외환보유고,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자산운용 수요 증가→자산운용 중심 금융 허브 지향
- 7대 추진과제: 1.. 자산운용업의 선도산업 육성, 2.금융시장의 선진화 도모, 3.지역특화 금융수요 관련 Initiative 확보, 4.금융산업의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5.한국투자공사(KIC)설립, 6.규제, 감독시스템의 혁신, 7.경영, 생활환경 개선

금융중심지 정책의 연혁

● 태동: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금융중심지 정책의 연혁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2008년 2월)

-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 3년마다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1차~6차(2023년 예정))
- 금융중심지 추진 위원회 설립

●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안(2008~2010년) : 4대 추진과제

- 1. 금융산업 선진화: 규제 선진화, 금융당국 쇄신, 금융산업 역량강화
- 2.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외환시장 제도개선, 금융인력 양성
- 3. 자산운용시장 육성: 자산운용시장 참여 활성화, 자본시장 국제화, 채권시장 고도화,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자산운용 수요 기반 확충
- 4. 금융시장 집적요건 조성: 금융클러스터 조성, 경영환경 개선, 외국전문인력 유치, 생활거주환경 개선, 영어사용 환경조성

금융중심지 정책의 연혁

● 서울/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2009년 1월)

- 서울 여의도: 종합금융중심지
- 부산 분현지구: 특화금융중심지

● 부산금융중심지의 비전(2010년 5월, 금융연구원 용역)

- 국제적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 금융중심지(Transnational Ship Financing, Derivatives, and Back Office/Backup Specializing Financial Center)
- 동북아시아→ 국제적 금융중심지 진입 목표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준공(1단계 2014년, 2단계 2018년, 3단계 착공 2022년)
-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BIFC 입주 : 한국거래소,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4개 해양금융기관 등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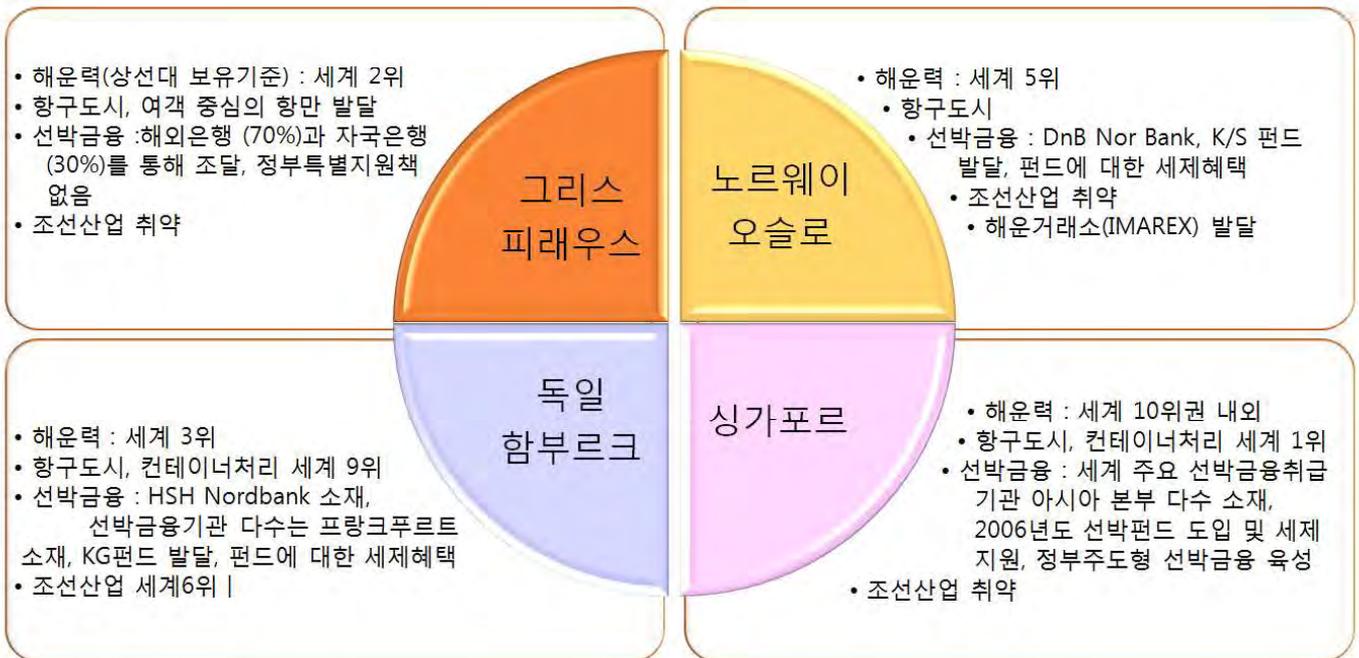
● 마스터플랜(2010)의 벤치마크 포지셔닝

업무적 분류 지역적 분류	광범위 업무 (Broad & Deep)	상대적 광범위 업무 (Relatively Broad)	상대적 특화업무 (Relatively Deep)	신흥 중심지 (Emerging)
글로벌 중심지 (Global)	글로벌 선두주자 (Global Leaders) 홍콩 싱가포르	글로벌 다업무 범위 (Global Diversified)	글로벌 특화중심 (Global Specialists)	글로벌 경쟁자 (Global Contenders) 베이징 두바이 상하이
국제적 중심지 (Transnational)	국제적 기존주자 (Established Transnational) 도쿄	국제적 다업무 범위 (Transnational Diversified) 서울	국제적 특화중심 (Transnational Specialists) 바레인 심천(선전) 타이페이 Busan To-be	국제적 경쟁자 (Transnational Contenders) 방콕 쿠알라룸푸르 뭄바이
지역 중심지 (Local)	지역적 기존주자 (Established Players)	지역적 다업무 범위 (Local Diversified) 오사카	지역적 특화중심 (Local Nodes) 자카르타 마닐라 카타르 Busan	지역적센터 (Evolving Centres) 리야드

As-is Busan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 기능별 벤치마크 금융중심지 : 해양금융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 기능별 벤치마크 금융중심지 : 파생금융

- ✓ 부산이 파생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벤치마크 해야 되는 대상은 런던, 뉴욕 같은 국제 금융허브 보다는 시카고, 몬트리올 등 자국의 장내파생상품거래소를 가지고 틈새시장을 개척한 도시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성공사례

시카고: 세계 최대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으로 발돋움

- 뉴욕에 비해 낮은 인지도 및 거래 비중 감소 문제에 직면
- 혁신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 우수 중개인 집중, 트레이너 및 해외 발행의 높은 비중을 유지
- 또한 전자거래소 및 기타 파생상품 등의 활성화 유도

몬트리올: 자국내의 파생금융중심지로 지위 구축 성공

- 금융중심지로서 낮은 인지도
- 장내 파생상품 거래소 유치 성공(정치적 합의)
- 파생상품 전문기술센터로 위상 강화

실패사례

바르셀로나: 금융중심지로 지위 구축에 실패

- 금융중심지로 낮은 인지도
- 해당지역의 취약한 금융시장 극복에 실패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 **기능별 벤치마크 금융중심지 :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적 적응(adaptation)**

- 백오피스/백업센터 → 블록체인 환경하에서의 디지털 금융중심지 및 글로벌 핀테크 허브 개념으로 전환
- 파생금융 중 온실가스배출거래소 등 ESG기능 강화
- 향후 BIG TECH의 금융업 진입, AI, 핀테크 등과 금융업의 결합에 따른 신종 비즈니스 출현에 대비한 정책적 유연성 및 민첩성 필요
- 종합금융중심지인 서울과의 시너지 확보 전략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과

● 서울 vs. 부산: GFCI 순위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과

● 총평: 멀지만 가야 할 길

- 과시적 성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는 금물
- 한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지리적 미래상을 감안할 때 적절한 방향성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 인구 감소 및 지속적 도시국가화
 - 선진국 진입과 글로벌 부(wealth)의 집적에 따른 금융수요 증가
- 서울과의 협업은 불가피

● 과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민첩한 적응

-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금융의 디지털 추세 가속화
 -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 8~2024. 8)
- 기존 금융기법을 넘어서는 신기술의 지속적 출현(moving target)
- 글로벌 국가들의 혁신 수용 경쟁
 - 영국: Innovation Hub, Tech City, 싱가포르: JTC LaunchPad(혁신기업단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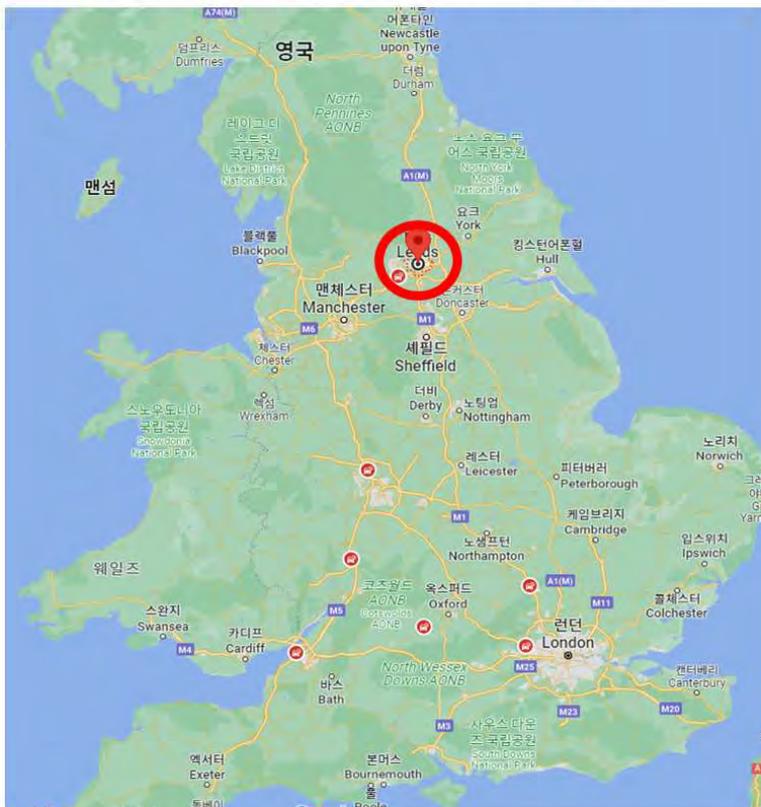
UK Infrastructure Bank의 사례와 시사점

- 정부소유(state owned)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 설립 일시: 2021년 6월
- 자본금: 22bn 파운드 (약 3.6 조원)
- 설립 목적: to help with the UK Government's plan to reach net-zero carbon by 2050 and to support economic growth in regional and local sectors across the United Kingdom.
- 6개 주요 사업

- To achieve policy objective and generate a positive financial return over time, to tackle climate change, support economic growth, and reduce the burden on the taxpayer
- To operate in partnership with private and public sector entities together
- To prioritise investments which lack a significant amount of private sector financing
- To operate independently of the shareholder while meeting conditions imposed thereby
- To exist as a long-lasting institution and provide long-term capital through its investments
- To have the flexibility to respond to differing market conditions in order to deliver on its mandate

UK Infrastructure Bank의 사례와 시사점

- UK Infrastructure Bank의 Headquarter는 Leeds에 위치



UK Infrastructure Bank의 사례와 시사점

- UK Infrastructure Bank의 Headquarter가 Leeds에 있는 이유

BD

Why the headquarter of UK Infrastructure Bank is established at Leeds?



The headquarters of the UK Infrastructure Bank was established in Leeds as part of the UK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of England,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less economically prosperous than other regions of the country.

The decision to locate the bank's headquarters in Leeds was made after a competitive selection process that involved several cities in the North of England. Leeds was ultimately chosen due to its central location, strong transport links, skilled workforce, and vibrant business community. The city is also home to a number of lead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hich are seen as key drivers of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By locating the UK Infrastructure Bank in Leeds, the government aims to provide a focal point for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cross the North of England. This is seen as a key part of the government's broader agenda to level up economic opportunities across the country and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outside of London and the South East.

17

Q&A

감사합니다.

- 발 제 2 -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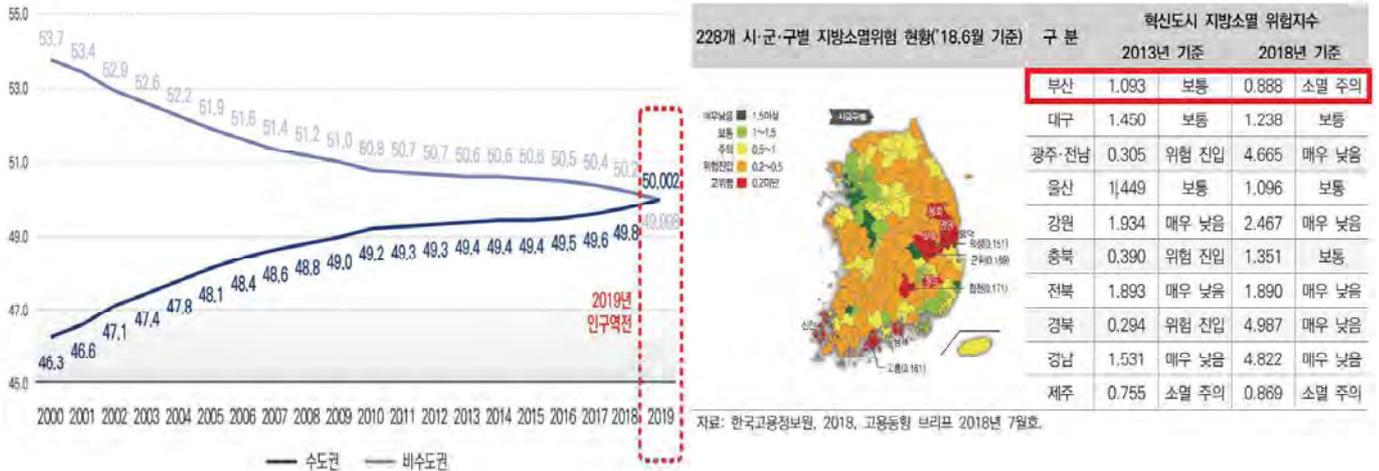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2023. 04. 24

동의대학교 배근호 교수

I. 부산의 고민과 위기상황 분석

1.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여전히 인구소멸 위험



- <왼쪽그림>은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가 2010년을 기준으로 완화추세를 보인 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다시 가속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오른쪽그림>은 201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되는 시점과 2018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비교함. 광주·전남, 충북, 경북 등 3개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는 2013년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하였으나 2018년 소멸위험에서 모두 벗어났음. 반면 부산의 경우 2013년 기준 '보통'이었던 소멸위험지수가 2018년에는 '소멸주의' 지역으로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조사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

2. 부산의 청년 이탈과 노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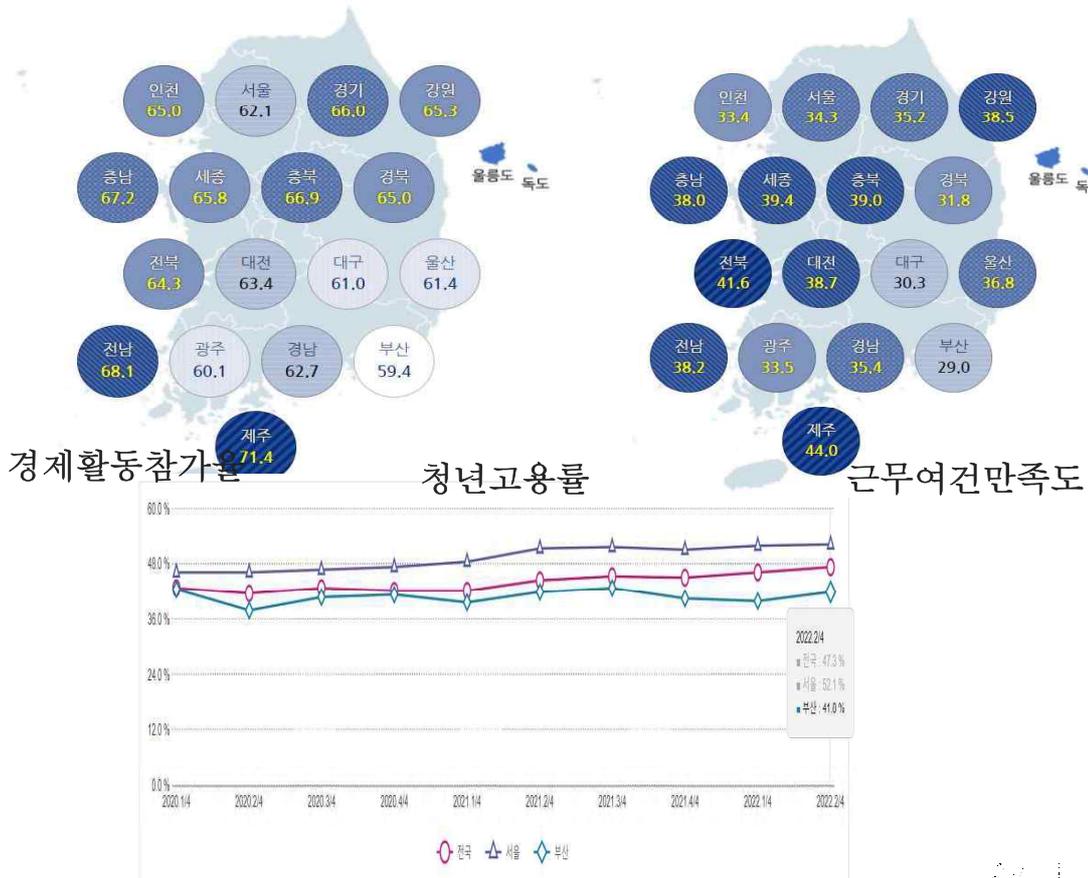
(1). 위기의 제2의 도시 부산

- 서울이나 경기도는 전국으로부터 인구의 흡입력이 커지거나 유지되는 반면 부산은 주변 도시나 지역으로부터 인구 흡입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2001년~2021년 연평균 순유출인구 약 3만명)
- 인천은 현재 인구가 296만명으로 영종, 송도, 청라, 검당 등 신도시 등의 발전과 함께 곧 부산의 총인구수를 앞설 것으로 예상
-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국내 총인구의 50%를 넘어섰고 60%를 향해 더욱 신속히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나 일본, 호주,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의 경우에도 남북 혹은 동서로 흡입력 있는 주요 도시들이 나뉘어 국토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뉴욕, 워싱턴 등의 동부와 LA, 샌프란시스코 등의 서부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일본의 경우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도 북쪽의 시드니와 남쪽의 멜버른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북쪽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와 남쪽의 뮌헨이 균형을 이루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한국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경기도, 인천에 전국민의 50.4%가 거주하고 있고 경제, 금융, 정치, 문화, 교육, 의료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밀도도 매우 높아 코로나19에서도 보았듯 전염병 창궐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18,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

- '22년 현재 **국내출산율은 0.8명**으로 전세계 유례없이 가장 저조한 수준이고 이러한 전세계 최저 출산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미 현실적으로 **지방의 도시들을 균등하게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 현실적으로 **전국을 양축** 정도로 **특화시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도 총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현재 시점이 골든타임.
- 과거 부산을 '한국 제2의 도시', '해양수도', '물류중심지', '금융중심지', '영화 도시' 등으로 포장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물류산업, 해양산업, 금융산업, 영화산업 등 대부분 산업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관련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등 고급인력의 대부분도 **특정 시기에만 부산에 와서 활동을 할 뿐 서울에 거주하며 부가가치의 대부분도 서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국가가 진심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토발전의 양대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민간부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산업은행을 필두로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남아있는 금융공기업들과 각종 기금운용 기관들 그리고 금융 관련 정부기관들까지 부산으로 이전하여 명실공히 금융중심지로서의 확실한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2) 부산의 일자리 분석(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3) 부산의 근로소득

< 시도별 임금총액 및 실질임금(단위: 천원, %) >

시도	임금총액			전국(100) 상대수준	시도별 소비자 물가지수 ¹⁾	실질임금 ²⁾		
	'20.4월	'21.4월	증감률			'20.4월	'21.4월	증감률
전국	3,788	3,968	(4.7)	100.0	107.39	3,610	3,695	(2.4)
서울	4,178	4,452	(6.5)	112.2	107.34	3,958	4,147	(4.8)
부산	3,382	3,563	(5.4)	89.8	107.60	3,217	3,312	(2.9)
대구	3,148	3,313	(5.2)	83.5	107.92	2,990	3,070	(2.7)
인천	3,443	3,612	(4.9)	91.0	107.51	3,279	3,359	(2.5)
광주	3,273	3,458	(5.7)	87.2	107.13	3,132	3,228	(3.1)
대전	3,526	3,642	(3.3)	91.8	106.83	3,389	3,409	(0.6)
울산	4,166	4,331	(4.0)	109.2	105.85	4,025	4,091	(1.6)
세종	3,756	3,846	(2.4)	96.9	-	-	-	-
경기	3,792	3,938	(3.9)	99.3	107.63	3,613	3,659	(1.3)
강원	3,238	3,354	(3.6)	84.5	108.23	3,069	3,099	(1.0)
충북	3,512	3,566	(1.5)	89.9	107.40	3,355	3,320	(-1.0)
충남	3,748	4,052	(8.1)	102.1	106.92	3,596	3,790	(5.4)
전북	3,327	3,372	(1.4)	85.0	107.37	3,184	3,141	(-1.3)
전남	3,661	3,804	(3.9)	95.9	108.01	3,481	3,522	(1.2)
경북	3,704	3,883	(4.8)	97.9	106.27	3,564	3,654	(2.5)
경남	3,538	3,744	(5.8)	94.4	106.92	3,393	3,502	(3.2)
제주	2,890	3,073	(6.3)	77.5	108.81	2,743	2,824	(2.9)

주 1)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 실질임금 = (명목 임금총액 / '21.4월 기준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100

* 세종은 소비자물가지수 미공표로 실질임금 산출 불가

○ 1인당 평균 총급여액 하위 10개 시군구는

1위 부산 중구(2,520만원),

2위 대구 서구(2,590만원),

3위 경북 의성군(2,820만원),

4위 전북 부안군(2,860만원),

5위 대구 남구(2,860만원),

6위 부산 사상구(2,890만원),

7위 경북 영덕군(2,900만원),

8위 전북 김제시(2,900만원) 등으로 나타남

○ 결국 수도권은 총급여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차지하고 제2의 도시인

부산은 하위 10위권에 중구와 사상구

두 곳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2021.4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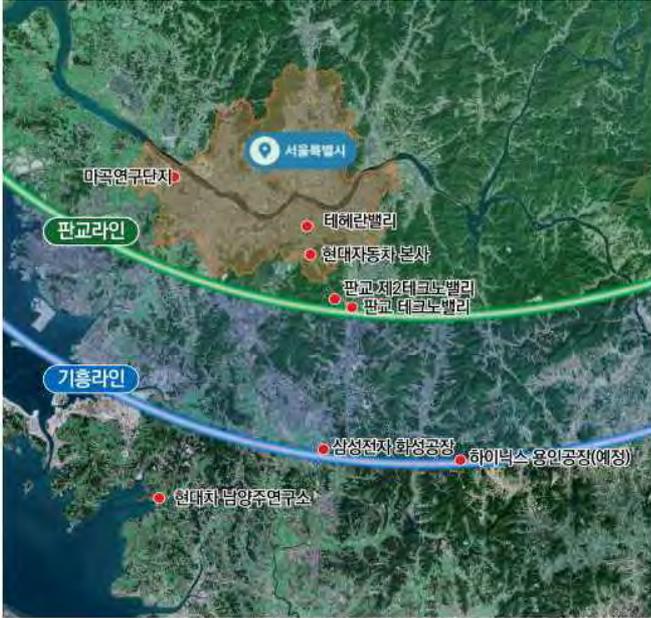
(4) 공공기관의 소득수준

-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금은 부산의 기업들이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
- BNK그룹 등 민간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삼성 등 대기업의 정규직원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수준을 능가하기가 쉽지 않음
- **산업은행의 2022년 평균 연봉은 1억 74만원**이고 신입사원 **초임의 4679만원**으로 조사되어(잡코리아,2022) 매우 좋은 직장으로 손꼽힘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2022년 평균 연봉은 1억 474만원**이고 **신입사원의 초임은 4,136만원**으로 조사됨
- 부산은행의 **2022년 평균 연봉은 1억926만원**이고 **신입직원의 초임은 3,700만원**으로 나타남
- 부산의 공기업으로는 **한국남부발전의 2022년 평균연봉이 8,665만원**이고 **신입사원의 초임은 4,293만원**
- 한국거래소의 연봉은 5,858만원이며 **신입직원의 초임은 3,969만원**으로 조사됨(잡코리아,2022)
- 같은 공공부문이라도 부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연봉은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아니면 지방에서 이와 같은 최고급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도권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고급의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남

출처: 잡코리아, 2022.4월

7

(5) 취업남방한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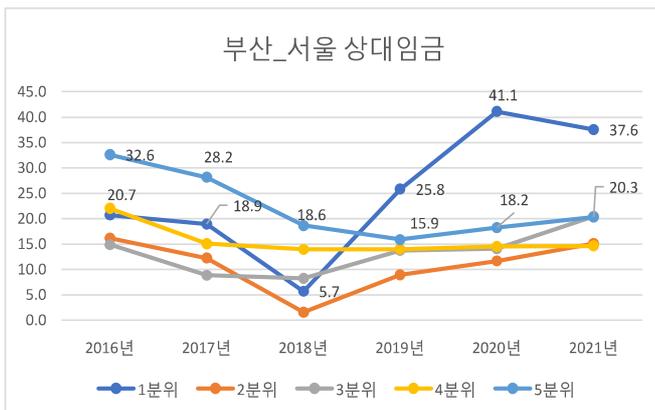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각 광역·기초지자체별 사활을 건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충정책을 비롯이라도 하듯이 청년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지방자치제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하는 특이한 상황에 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는 매우 낮아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음
-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력들은 이른바 '취업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경기도 기흥 위쪽으로 집중 분포하면서 일부 남은 지역의 R&D 기반시설도 수도권으로 역이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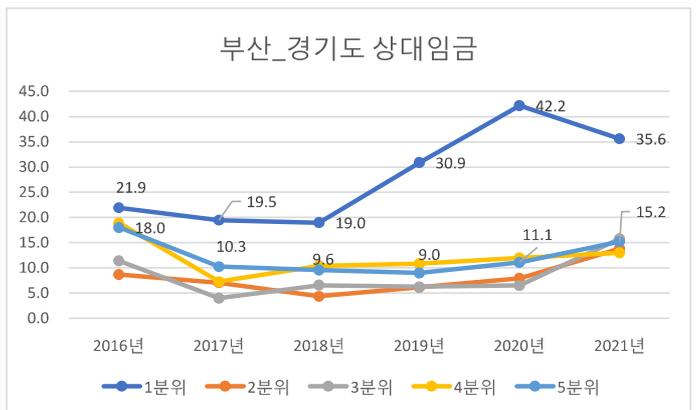
- 이처럼 **고급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제로(zero)%에 가까우며** 그나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고급인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결국 인재의 이동은 지방에 좋은 직장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서울의 좋은 직장이 지방으로 옮기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면 인위적인 인구의 이동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8

3. 부산 청년들의 부산전출 원인분석



상대임금 = 서울평균임금/부산평균임금 × 100 - 100



상대임금 = 경기도평균임금/부산평균임금 × 100 - 100

- 특별히 4분위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분위에서 **평균임금의 격차가 매년 더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임금격차로 인한 **부산이탈과 서울집중**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 부산과 서울의 분위별 상대임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특별히 큰 격차를 보임
- 소득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취업기에 있는 **청년들일 가능성이 높는데 부산에 비하여 서울의 청년들이 평균임금을 약 41.1%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려는 확실한 원인임**
- 결국 고급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은 **고강도의 자구노력이 없다면 지방소멸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9

II.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 분석

1.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완화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

(단위: %)



출처: 건설교통부 외 2005(원자료는 통계청의 통계자료).

(단위: %)



출처: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51E&conn_path=I3, 2020년 8월 4일 검색).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인구 집중화 속도를 약 8년 정도 완화시킴(2011년→2019년)
 -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됨
- 하지만 현재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됨

2.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입주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19, 혁신도시 통계자료('19년 말 기준).

- 2013년~2019년 사이 산학연 클러스터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입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혁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있으나 광주전남, 경남 등에 비해 미흡함

12

2.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입주 추이(2)

최근 5년간 혁신도시의 연도별 입주 기업 누적 증가 추이

단위: 개소

		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클러스터 용지	합계	2,047	176	151	447	147	63	87	235	75	509	157
	내부	1,572	0 (미조성)	151	387	147	62	63	27	70	508	157
	외부	475	176	0	60	0	1	24	208	5	1	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22. 8).

- 혁신도시 전체로는 기업 유치가 2천개 이상 달성되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간 불균형은 비교적 큰 편임
- 혁신도시별 입주 기업수의 경우 경남이 509개사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 전북, 부산, 제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하지만 동일한 광역지자체 내에서의 이동이 대부분이고(전체의 49.5%),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 이동은 13.7%에 불과한 실정임

13

3.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

부산의 혁신도시 종사자수 성장률 비교



부산의 혁신도시 사업체수 성장률 비교



- 대부분 혁신 도시들이 2007년 ~ 2012년에 비하여 2012~ 2017년에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부산의 경우 42.1%로 감소하였고 전북도 이전에 비하여 감소함**
- 모든 혁신 도시들이 2007년 ~ 2012년에 비하여 2012~ 2017년에 사업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부산의 경우는 31.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임**

출처: 부산광역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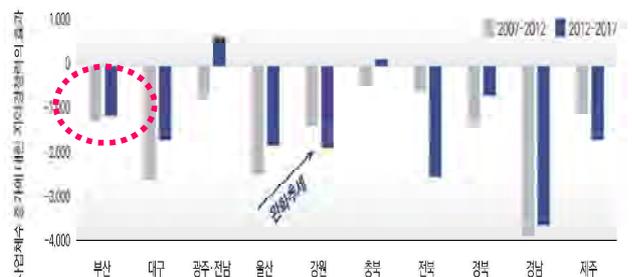
4. 1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의 혁신성장 효과 분석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별 총사업체 수

구분	2007년	2012년	2017년	증감		증감률	
				2007~2012	2012~2017	2007~2012	2012~2017
전국	3,193,275	3,530,931	3,942,158	337,656	411,227	10.57%	11.65%
전체혁신 도시	150,943	164,147	186,764	13,204	22,617	8.75%	13.78%
부산	15,231	15,934	17,272	703	1,337	4.62%	8.39%
대구	21,569	22,644	25,351	1,075	2,707	4.98%	11.95%
광주·전남	5,426	5,626	7,633	200	2,007	3.69%	35.67%
울산	14,443	14,703	15,992	260	1,289	1.80%	8.77%
강원	22,004	24,731	28,776	2,727	4,045	12.39%	16.36%
충북	5,119	5,804	7,495	685	1,691	13.37%	29.14%
전북	21,859	26,638	29,292	4,780	2,654	21.87%	9.96%
경북	8,514	8,754	10,057	240	1,303	2.82%	14.88%
경남	25,241	26,692	29,727	1,451	3,035	5.75%	11.37%
제주	11,537	12,621	15,170	1,084	2,549	9.40%	20.20%

○ 전국 혁신도시의 증가율은 2007~ 2012년은 10.57% 였고 2012~ 2017년은 11.65%로 나타나서 부산의 혁신 도시와 비교할 때 부산의 사업체 수 증가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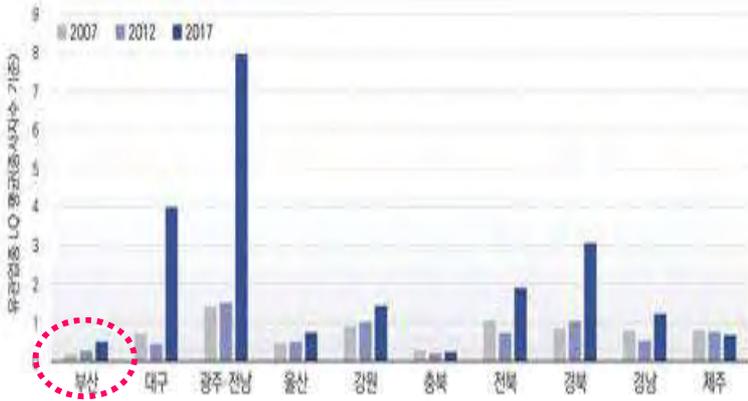
혁신도시 소재 시·군·구별 총사업체수의 지역경쟁력 효과



- 지역경쟁력은 총사업체수 증가에서 국가기여, 광역기여, 국가산업기여, 광역산업기여 효과를 제거하면 지역경쟁력 효과가 산출되는데 이 수치가 0 이상이면 해당 부문 지역경쟁력이 있음
- 부산의 경우 지역경쟁력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아 직접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가적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확대를 통해 지역성장을 극대화할 필요 제기**

출처: 부산광역시청

5. 혁신도시의 지역화경제 : 유관업종 집적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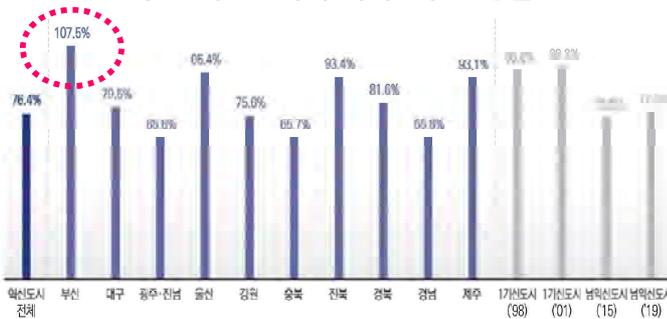
- 지역화 경제는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업종 종사자수의 집적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측정되며 입지계수(LQ:Location Quotient)에 의하여 측정됨
- 입지계수(LQ)는 지역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내며,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면 해당 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의 기반산업으로 판단함
- **광주·전남과 대구의 경우 집적 정도가 약 4.6배 증가되는 등 집적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부산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약함**
- **혁신도시형과 재개발형에 따른 개발 방식의 차이가 집적도 분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부산의 경우 집적도 강화를 위해 추가 공공기관의 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됨**

출처: 국토연구원,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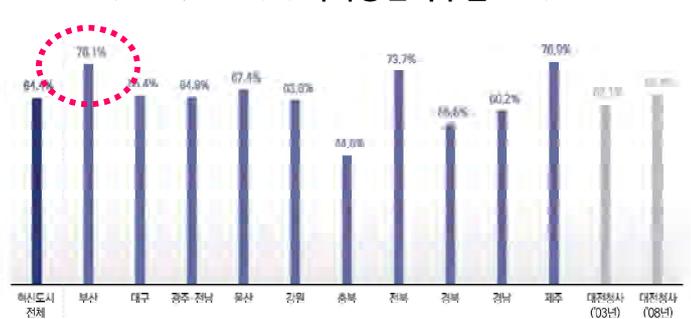
16

6. 부산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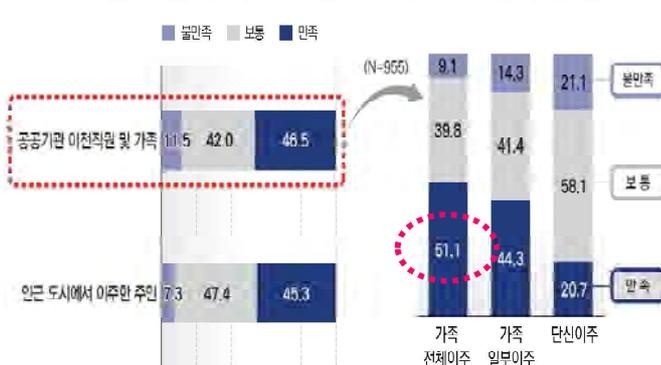
부산 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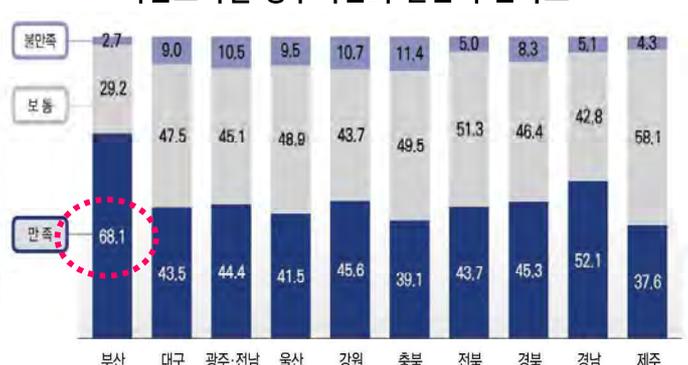
부산 혁신도시의 가족동반이주율 분석



이전 직원과 가족의 만족도 및 이주형태별 만족도



혁신도시별 정주여건의 전반적 만족도



출처: 국토연구원, 2018년

17

Ⅲ. 정책금융기관 집적을 통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방안

부산광역시청

18

1. 기본방향

-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분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직접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수도권에 소재한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고용증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지역의 대표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적 동질성을 강화하고 **산업의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할 필요 있음**
 - 현재 부산 지역에서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
-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19

1. 기본방향(2)

- 부산 문헌혁신도시는 지역발전 방향,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산업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 여의도의 종합금융중심지를 보완하고 차별화하여 해양 및 파생금융 특화 허브 육성을 지향하고 미래 금융의 주축인 디지털 및 녹색 금융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임

20

2. 이전 대상 기관

기관명	주무기관	기관유형	최초 지정연도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2007년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007년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007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기타공공기관	2018년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2007년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	2007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2007년

21

2. 이전 대상 기관(2)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검토해 보면 수도권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기관, 기획재정부 2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기관임
- 부산 문현혁신도시는 지역발전 방향,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산업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 여의도의 종합금융중심지를 보완하고 차별화하여 해양 및 파생금융 특화 허브 육성을 지향

22

3. 이전 대상 기관의 주요업무

기관명	주요업무
예금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자산매각, 파산배당 등 지원자금의 회수
한국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중소기업, 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에너지 및 자원개발, 기업 해외진출과 구조조정,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 ▪대출 또는 어음할인, 증권 응모인수 및 투자 ▪예금·적금, 산업금융채권, 한국은행 및 기타금융기관 차입, 외국자본 차입, 내외국환 업무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과 어음 할인 ▪예·적금, 유가증권 등 발행 ▪내외국환과 보호예수/국고대리점/지급승락 ▪정부, 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자금차입
서민금융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및 대외교류·협력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공공기관이전사업

23

3. 이전 대상 기관의 주요업무(2)

기관명	주요업무
한국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공급 : 수출촉진,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대출·어음 할인, 증권 투자 및 보증, 채무보증 ▪정부차입, 외국자본 차입 ▪수출입금융채권, 외국환 업무
한국투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에서 위탁 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자산관리 및 운용관련 조사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 ※ 증권의 매매, 외국환의 매매, 파생금융거래,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예치, 국내·외 부동산의 매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한국무역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보증 ▪기금관리 및 운용,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부품 소재 신뢰성 보험 업무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업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24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해양금융 부분은 부산이 서울 보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으로 해양금융 부분의 특화에서 가속도가 붙은 상황임.
- 또한 기존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구성조직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현재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있음.**
- 무엇보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지나치게 비대한 상황을 지양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전 금융 공공기관의 전·후방 연관 산업과 쌍방향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관련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됨.**

25

(참고) 정책금융기관 현황과 활용방안

(현황)

- 금융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설립을 통해 28개 공공·민간 금융회사 집적
 -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 조성,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 금융도시 추진을 위한 기관 설립 참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 해양금융 지원 인프라 및 해양금융 네트워크 구축
 - 정책금융기관의 해양금융부서 집적(해양금융종합센터)
 - 해운산업 지원 기관 설립(한국해양진흥공사)
 - 해양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추진(부산해양금융협의체)

26

(참고) 정책금융기관 현황과 활용방안

(활용)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모색

- 지역 주력산업 자금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착근성을 높이고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해양금융 지원 및 네트워크 기능 강화
 - 해운항만산업 금융 공급 확대, 시황변화에 따른 위기대응 강화, 산업환경 전환 대응 지원
 - 친환경 선박 도입 등 신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관산업 활성화 도모
 - 네트워크를 통해 유관기관 협업 금융지원 확대

27

감사합니다



- 토론회 좌장 -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

- 토론회 패널 1 -

**인하대학교
장원창 교수**

- 토론회 패널 2 -

산업연구원
김용 부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찾다)’ 토론편:
금융중심지 부산의 산업금융 및 혁신금융 전략 및 과제**

김 용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잠재력
- 금융중심지 선정과 정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은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증대
 - 2009년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선정되고 “국제적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 금융중심지” 를 비전으로 채택
 - 이외에도 부산시는 디지털 금융기업 지원사업,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및 금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
 - 또한 한국거래소 이전에 이어 금융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이전하였으며 최근 들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
 - 산업은행이 부산에 정착할 경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금융 시장과 혁신금융 시장의 잠재력이 확대될 전망
- 조선, 해운산업의 파생상품 시장과 핀테크 생태계 시장 조성을 통해 산업금융과 혁신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필요
 -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요건 중 하나는 사업 기회가 풍부한 실물경제로¹⁾ 부산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유망한 해운업, 조선업에 관련된 금융업, 특히 파생상품 시장을 개척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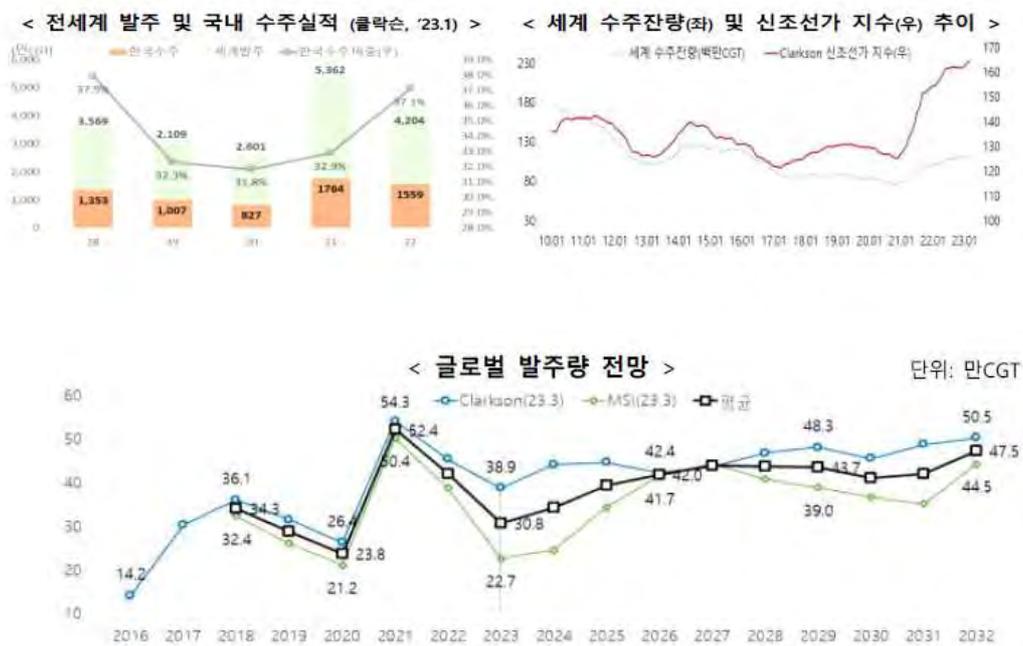
1) 이병윤, 이윤석(2022)

- 또한, 부산시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금융업의 미래인 핀테크 기업과 테크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
-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사태와 조선, 해운업 대상 파생상품과 시장의 필요성
- 최근 RG 공급이 적어 많은 선박 수요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체가 생산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
 - RG란 조선업체가 부도나거나 약속한 날짜에 수주에 배를 인도하지 못할 때 선수금을 보증한 금융회사가 대신 선수금을 선주에게 환급하는 계약
 - 조선업체는 RG를 발급받을 때까지 조선을 시작하지 못함.
 - 코로나19 이후 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망 문제로 조선 소요 시간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전 대비 국내 금융시장의 RG 공급이 감소
 - 코로나19 이후 국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감소한 RG 공급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기까지 수요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선박 수주 사업성 평가를 확대하고 RG 공급을 확대하여 앞으로 조선업 관련 금융 수요가 증가할 전망²⁾
- 한국 조선업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 보여 조선업 파생상품 시장의 필요성 증가
 - 현재 국내 기업의 선박,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전망 (<그림 1> 참조)
 - 따라서, RG에 대한 수요도 더 높아져 조선업 관련 산업금융 규모가 확대될 전망

2)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6.),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보도자료

- 하지만 은행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RG를 더 많이 제공하는데 부담이 클 가능성이 존재
- 더 많은 위험 자산은 은행의 자기자본 보유 비율을 증가
- 즉, 기존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담당했던 RG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측면에서 RG와 관련된 리스크를 분산하여 금융거래 비용을 낮추는 파생상품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

<그림 1> 국내 조선사의 수주 실적과 발주량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04.06.), “선수금환급보증(RG)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보도자료

○ 조선, 해양업 관련 파생상품 시장을 부산 금융센터에서 확보할 필요

- 한국은 세계 조선업의 1~4위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경상도에 조선소를 보유

- 많은 조선소와 근접한 부산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시카고와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한 파생상품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부산의 금융업과 국내 조선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함.

□ 전 세계적인 혁신금융 시장 활성화와 신흥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금융업 육성방안

○ 스타트업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그림 1> 연도별 미국 벤처투자 추세



자료: Pitchbook-NVCA (2022), “Venture Monitor”

- 특히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기업³⁾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

○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며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주춤하였지만, 장기적으로 혁신금융 확대는 계속될 전망

-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며 올해 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이 주춤하고 있음.

3) 특히, 기업 솔루션(enterprise tech)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Pitchbook 2022)

-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기술 패권 경쟁 구도가 심화하면서 벤처투자 시장은 장기적으로도 활성화될 전망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같은 경우 벤처캐피털의 투자 감소의 공백을 은행의 투자가 메꾸고 있음.⁴⁾
 - 특히, 한국은 모태펀드에 기반한 벤처투자와 더불어 최근에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며 정부와 민간의 벤처투자가 확대될 전망
- 신홍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
- IoT,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른바 핀테크 기업은 금융업의 기존 구조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 현재 전 세계 기존 금융업 대기업들도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확장하여 핀테크 기업은 금융업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Lloyds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인증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Yoti라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중
 - 아직 핀테크 산업이 중심이 되는 금융중심지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기존 핀테크 기업 육성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음.
- 또한, 핀테크 클러스터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 핀테크 기업은 빅데이터, AI,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⁴⁾ The Fintech Times, (2022.10.22.)

-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부산에서 지속해서 육성하려면 전반적인 핵심기술을 다루는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관련 테크기업 육성도 필요
-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 육성을 위해 부산에 있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혁신금융 사업 확장과 이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에 긴요

○ 핵심 인력 유치와 정착을 위한 부산의 도전과제

- 금융중심지 발판을 마련하여 더 많은 금융기업, 핀테크 기업,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인력 유치가 필수적
- 인력 유치를 위해선 부산에 정착할 유인체계를 형성할 도시의 쾌적성(Amenity) 및 좋은 학군 형성이 필요
 -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 인력이 집중된 경향
 - 많은 비수도권 신도시는 쾌적성이나 교육 측면에서 비교우위 열세에 처해 있음(예 세종시).
- 인력 유치를 위해선 부산 역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 따르는 쾌적성과 특히 좋은 학군 형성이 필요
- 부산은 쾌적성 측면에서 다른 비수도권 도시나 수도권 도시에 비해 강점을 지니고 있음.
- 좋은 학군을 형성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과 같은 방안 강구가 필요

□ 결론: 부산이 지닌 잠재력과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 기대

- 토론회 패널 3 -

한국해양대학교
조성순 교수

- 토론회 패널 4 -

부산광역시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

MEMO

MEMO